

광주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 추세

국제기후환경센터 보고서, 2016년 총 925만2000t

온실가스 多배출 시설 적어 1인 배출량 6.21t 그쳐

건물과 교통량 많은 광산구·북구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2013년 이후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 국제기후환경센터가 2016년 광주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해 발표한 '2018 광주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925만2000t이었다. 이는 2010년 884만2000t 대비 4.6%, 2015년 921만과 비교

해 0.5% 증가했다.

전년 대비 총배출량 증감률은 2010년 7%에서 2011년 -0.5%, 2012년 1.3%, 2013년 5.2% 등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4년 -0.3%, 2015년 -1.5%, 2016년 0.5% 등 완화세로 돌아섰다. 1인당 배출량은 2013년 6.3t에서 2014년 6.26t, 2015년 6.18t, 2016년 6.21t이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은 13.5t이었다.

센터는 1인 배출량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해 광주에는 발전소, 중화학·철강 등 온실가스다(多)배출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이 846만2000t으로 91.5%를 차지했다. 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비에너지 부문은 8.5%에 그쳤다.

에너지 부문에서 차량 등 수송용이 279만5000t으로 33.0%를 차지했고 상업용 21.9%(169만1000t), 가정용 20.9%(176만5000t), 산업용 20%(169만1000t), 공공용 3.2%(27만1000t) 등이었다.

구별로는 건물과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광산구와 북구에서 다른 지역에 비교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공원·가로수 등 녹지에서는 2015년 1만4896t, 2016년 1만4886t, 2017년 1만4902t 등 매년 1만5000t 수준의 온실가스를 흡수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녹지 공간 조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속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해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진도군 조도 가람도 특별보호구역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유작나무돌산호 서식 확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진도군 조도 가람도를 2037년까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15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따르면 가람도는 조류와 풍부한 영양

염의 영향으로 각종 산호군집이 밀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유작나무돌산호의 서식이 확인돼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가람도 출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히말라야 폐기물, 한국이 해법 찾는다

안나푸르나·에베레스트 등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 착수

한국환경공단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히말라야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최근 수주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폐기물 관리정책 개발용역사업'을 지난 14일부터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파키스탄·인도·네팔에 걸쳐 있는 히말라야 산악지역에 급격히 늘고 있는 관광객의 쓰레기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 등을 제안하는 정책용역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네팔의 안나푸르나와 에베레스트 지역, 인도의 히말찰 프라데시 지역, 파키스탄의 카이버 파크툰와 지역 등 총 3곳이다.

안나푸르나·에베레스트 지역은 세계 최고봉이라는 상징성으로 산악 등반 등 관광



한국환경공단·서울시립대 공동조사단이 촬영한 네팔 안나푸르나 보호구역에 관광객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

객 유입이 많다. 히말찰 프라데시 지역과 카이버 파크툰와 지역은 각각 쿨루-마날

리 계곡과 카간 계곡이 위치해 여름철 산악 휴양지로 알려지면서 폐기물이 발생량

이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0여 년 간의 국가 폐기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에서 진행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12월 초 미국 워싱턴디씨(DC)에 있는 세계은행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직접 수주한 최초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8000만 원(미화 24만 달러) 규모이며, 올해 9월 말 종료된다. 사업내용은 산악지대의 폐기물 관리현황 평가, 산악지대 폐기물의 주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대상지역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기관의 역할 파악, 산악지대 통합 폐기물관리 정책 및 모델 개발 등이다.

힘준한 산악지역의 폐기물 관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악전문기관인 (사)한국대학산악연맹, 폐기물관리 연구전문기관인 서울시립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 빚가람혁신도시 '축산 악취 민원' 절반 이상 줄인다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 ...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 선정

축산 악취 등으로 인한 나주 빚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의 고통이 감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해 2028년까지 악취 민원을 50% 이상 줄이겠다"고 15일 밝혔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017년 2만2851건에 달한

악취 관련 민원 건수를 2028년에는 약 1만건으로 절반 이상(57%)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

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준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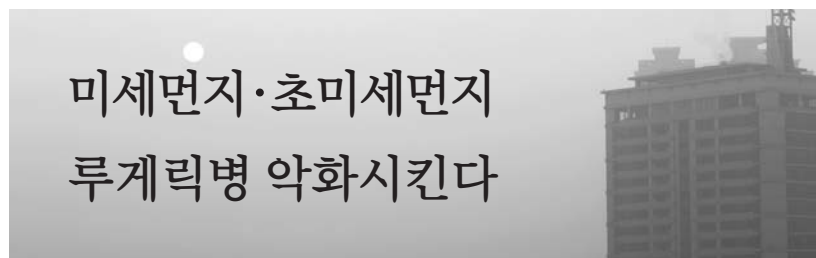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측정을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주변 지역 악취 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인 축산시설을 현대화에 악취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우선은 신고 허가 규모 이상의 토사를 밀폐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울대 연구팀, 617명 분석
치매·파킨슨병 환자도 영향

각종 질병 발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가 난치성 질환으로 꼽히는 루게릭병 증상을 악화시켜 응급실 방문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루게릭병은 팔다리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근육이 위축되는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이혜원)·분당서울대병원(명우재)·서울대 보건대학원(김호) 공동 연구팀은 2008~2014년 사이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루게릭병 환자 617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응급실 방문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조사 기간에 루게릭병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일 근처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했다.

이 결과 초미세먼지의 경우, 농도에

따라 4분위수 범위(IQR, interquartile range)로 나뉘었을 때 1분위가 증가할 때마다 루게릭병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위험은 21% 높았다. 또 미세먼지는 같은 조건에서 루게릭병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13% 높이는 요인이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4분위수 중 최고조에 달한 날에는 루게릭병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위험이 최저치보다 각각 40%, 33%나 치솟았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이밖에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2)과 일산화탄소(CO)도 1분위가 증가할 때마다 루게릭병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19%씩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이혜원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루게릭병을 악화하는 인과관계가 확인됐지만, 외국에서는 루게릭병 발병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면서 "이런 메커니즘은 흡연이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존의 분석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매매 - 4억(일시불 조정가)
- 임대보장

문의. 010-6834-7400

다스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부지임대) 없이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부지임대) 없이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한 발의신 분
 - 대표 단가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게
-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사업주 영업
 - 태양광 영업 영업
 - 태양광 영업 영업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 소
	신재생에너지	R&D	
세 라 코	수질관리	상업영업	나 주
	생물리 (생물자원)	R&D	

~ 접수마감: 2019년 01월 25일, 문의: 010-257-8888, 010-257-888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